대구광역일보

since 1996 28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2024년 8월 28일 수요일(水) I 제5446호

봉화군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결사반대… 봉화군의회가 대구 · 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권영준 의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통합으로 경제적 혜택이 경북 북부 지역까지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무엇보다 북부 주민들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지역 분열이 초래할 수 있는 것도 한몫 했다. 때문에 군 의회는 도민 동의없는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상기 기자

행정통합안, 홍준표 오늘·이철우 9월까지 결론은?

이철우, 통합안되면 역사의죄인
홍준표 시장 제안 수긍 어려워
시군 권한 줄이는 것 옳지않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행정통합 안을 놓고 시군의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 내자고 대구시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서 통합의 원칙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시군이 특색 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간다"며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내 집 앞 하천 바닥이 높아져 홍수가 나는데 멀리 있는 중앙정부가 준설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대구시장님이 주장하는 서울시 모델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울시는 605㎢지만 대구경북은 1만9921㎢로 면적이 33배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울시청이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라서 중구난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의 도시계획은 포항, 구미, 안동이 각자 고민해서 특색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라며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극복하려는 것을 따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가 청사를 3개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그러나 동부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줄이고 광역정부로 내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특히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는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자"며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내자"고 제안했다. 김성용 기자

사진은 홍준표 이철우

I 단체장 일정 I

주낙영 경주시장은 28일 오전 대외협력실에서 열리는 희망나눔 성금전달 기탁식에 참석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28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경북교육청 공무원 합격자 여성 비율 또 하락…

최종합격자 223명 발표
최연소 합격자 만 20세
최고령 합격자 만 54세

경북교육청이 올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23명을 누리집에 발표했다.

지난 6월 22일 필기시험과 8월 9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한 인원은 동점자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따른 양성평등 추가 합격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포함해 5개 직렬 223명이다.

모집구분별로는 교육행정 일반 170명, 교육행정 장애 8명, 교육행정 저소득 4명, 보건 4명, 기록연구 3명, 운전 14명, 봉화교육청 운전 1명, 시설관리 19명이다.

경쟁률은 2022년 9.8대1, 지난해 5.8대1, 올해 4.3대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올해 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134명으로 60.1%를 차지해 지난해 67%(156명)보다 크게 낮아졌다.

여성합격자 비율은 지난 2019년에는 74%(172명)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71%, 2021년 66%, 2022년 68%, 지난해 67%, 올해 60%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올해 합격자의 연령은 20대가 127명(57.0%)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75명(33.6%), 40대 17명(7.6%), 50대 4명(1.8%)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54세로 나타났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5일 본청 웅비관에서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고,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신규 임용 예정자 과정 기본교육을 이수한다. 김성용 기자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원대 '청신호'

대구 미래50년 핵심사업
정부 예산안에 다수 반영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8조원대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5대 미래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문화콘텐츠 도시 조성 등 정부 국비 핵심사업들을 다수 반영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미래50년을 위한 핵심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다수 반영한 것은 대구광역시와 지역 국회의원실 간 협업의 성과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잘 활용하여 대구 번영의 틀을 마련하는 대구혁신 100+1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 투자사업 3조 8500억원을 포함해 총 8조 1000억원의 국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 건전재정기조 지속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부거대경제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대구산업선 및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등 교통 인프라 사업과 로봇·ABB·반도체·미래모빌리티·헬스케어 등 미래 5대 첨단산업 육성 등 사업들도 다수 반영됐다.

국비 확보로 대구 대개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신규사업을 발굴 및 구체화하여 국비전략 보고회를 통해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행정·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방문 협의·설득하는 등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비활동의 결과로 분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5월 10일)'와 '대구광역시장-경제부총리 예산협의회(6월 18일)' 등을 통해 대구의 핵심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한 것이 주요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에 큰 역할을 했다.

2025년 정부예산안 주요 반영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9년 개항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설계비(667억원)를 추가 반영함에 따라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1209억원), 도시철도 4호선 건설(139억원) 등을 반영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증진과 함께 물류 수송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에 김종호 선임

달성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이끌어갈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에 김종호 前 달성군 자치행정국장이 선임됐다. 앞으로 2년 동안 재단을 이끌게 된다. 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8일간 공개모집을 거쳐 진행됐다.

김 대표이사가 전문성과 조직경영 능력, 리더십 등을 인정받아 최종 임명됐다.

김 대표이사는 1965년생으로 계명대학교 행정학을 전공하고, 달성군에서 약 34년간 재직하며 국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

김 대표이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쌓아온 행정경험과 소통, 리더십을 바탕으로 문화재단 발전과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철도로 대구·경북 어디서나 1시간내 접근 가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1개 신규 철도 사업 건의

경북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등 모두 21개의 신규 철도 사업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북이 건의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 시·군 및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먼저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기반 사업으로 추진하는 'TK 신공항 광역철도'와 연계해 기존노선인 중앙선(의성~영천), 대구선(영천~동대구)을 활용한 '대구경북신공항 급행순환철도망'을 구축한다.

이 철도는 지방권 광역철도 최초로 시속 180km급 광역급행 철도(GTX) 차량을 투입해 신공항을 중심으로 70분대로 순환 운행한다.

의성~신공항 8분, 서대구~신공항 22분, 영천~신공항 31분 등 어디서든 4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포항~신공항 철도 △김천~구미~신공항 철도 △의성~영덕 철도 △상주~신공항 철도 등도 건의했다.

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공간구조 개편을 목표로 북부행정도시권, 환동해권, 대구권, 서부첨단도시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올해 개통 예정인 동해중부선(포항~울진)과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중부내륙선(문경~김천), 현재 운영 중인 동해남부선(포항~경주), 중앙선(영천~경주), 대구선(동대구~영천), 경부선(동대구~김천), 점촌~영주선, 미연결 구간인 분천~울진 구간을 연결하게 된다.

철도망이 구축되면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이 실현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등 다른 광역권과 연계한 초광역 철도망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서산~영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전주와 김천을 잇는 전주~김천선, 오송~안동고속철도,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노선으로,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이 미진한 △경북선(점촌~영주) △문경~안동선과, 신규 발굴 사업인 △대구권광역철도(경산~청도) △대구권광역철도(동대구~포항) △울산권 광역철도(북울산~경주) △청주공항~포항내륙철도(청주~포항) △안동~영덕선 등도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해 건의했다.

이들 노선이 반영되면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일반철도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중앙선(도담~영천), 동해선(포항~동해)과 대구권광역철도(구미~경산) 등 일반철도, 광역철도를 상호 연결하는 대구경북통합 메가시티 발전의 기반을 담당하는 새로운 철도망이 구축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지역 산업 육성 및 인재 채용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e편한 2차어린이집 원생 영천시의회 체험 행사

영천시 이편한2차어린이집 원생 15명이 대상으로 영천시의회를 찾아 체험행사를 했다. 원생들은 의회 간담회장에서 김선태 의장, 김용문 의원 등과 함께 환영인사를 나누고,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눈높이에 맞게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의장 등 의회 곳곳을 둘러보고 의사봉 체험을 직접 해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장차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영천시 행정지원국 소관 첫 언론브리핑

매월 국·소장 직접 소관 업무 브리핑 다양한 목소리 듣고, 소통의 장 확대

영천시는 27일 야사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장(야사동 산39-1)에서 행정지원국 첫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은 국 관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실이 아닌 사업 현장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장에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김명규 행정지원국장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영천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했다.

김 행정지원국장은 "올해 연말까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완료해 주민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도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민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야사동 일대의 지도를 새로이 그릴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8월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매월 국, 소장이 직접 소관 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의 장을 확대한다.

최은하 기자

달성군, 나눔의 행복… 찾아가는 푸드마켓 운영

사랑 넘치는 '기부' 식품 복지사각지대 해소 앞장

달성군은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균형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푸드뱅크와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마켓·푸드뱅크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어르신에게 원하는 식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나눔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이다. 결식우려아동 지원을 위한'hope food pack'사업에 선정되어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기간 동안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 295명의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대용품을 제공,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다사푸드마켓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480가구에게 월 10포인트(약3만원 정도)를 부여한다.

식품 및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월 3주차에는 화원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옥포읍 △하빈면 △구지면 △유가읍 △가창면 △현풍읍사무소 등을 요일별로 찾아간다.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전달,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준다. 기부물품은 0.5포인트로 책정된 음료수부터 라면, 참기름, 간편조리식품, 화장품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푸드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던 한 주민은 "물가도 비싼 요즘 마트가기가 무서운데, 이렇게 원하는 물건을 금액 걱정 없이 고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봉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각종 개인 및 기업들의 식품기부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달성군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18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달성푸드뱅크(053-616-1376)는 논공읍 논공로 697-9, 달성푸드마켓(053-588-1375)은 다사읍 대실역북로 2길 101-6에 2곳이 있다.

관내 기업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부품은 10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여은 기자

대구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방' 총력

전 학교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및 처벌 규정 행동 요령 등 안내문 게시

대구교육청은 불법 합성(딥페이크)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피해 시 대응 요령을 모든 학교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적극 나섰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든 학교의 누리집에 27일 부터 디지털 성범죄 사례, 법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게시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주의를 당부했다.

'딥페이크 피해 학교'명단이 온라인 상에 떠돌아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26일 오전 모든 학교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피해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및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토록 했다.

교육청은 대구경찰청과 협력, 학교 명단의 진위 여부와 피해 및 가해 학생 파악에 나섰다.

현재까지 교육청과 경찰청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는 112(경찰청) 및 1377(방송통신위원회)로 할 수 있다.

상담 및 지원은 1366(여성긴급전화), 02-735-899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황태용 기자

중앙아프리카, "경북농업 한수 배워러 왔습니다"

대학교수·지역지도자 등 17명 방문 새마을운동 및 경북농업기술 연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관계관 17명이 경북의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경북농업기술원을 방문했다.

대학교수, 정부 관계자, 지역지도자 등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관계관 17명은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기술원의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험포장에서 직접 농업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는 영남대학교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행됐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레소토 등 3개국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진행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대학과 협업을 통해 경북의 새마을운동과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해 아프리카의 빈곤 탈출, 농업주도 경제성장, 식량 증산, 농업기술 개선 등을 지원한다.

연수단 대표인 케레비 앙리 클로테르 교수는 "경북의 선진 농업기술과 새마을운동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농촌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모델이 될 것"이며,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 농촌의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연수가 양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경험을 세계 각국과 나눠 국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군위군, '틈새돌봄사업 ' 어울림 큰 인기

틈새돌봄 아동 정원 내 아동 사회성증진 한 몫

군위군이 마련한 2024 대구형 방과후 틈새돌봄 사업 '어울림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

부계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 22일, 돌봄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맞춤형 체육 활동을 통해 틈새돌봄 아동과 정원 내 아동의 사회성을 증진 및 친목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실내 체육활동은 아동들이 서로 배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협동바운스 등 팀 협동게임 게임과 알찬 내용의 레크레이션으로 구성됐다.

이선미 센터장은 "폭염으로 실내 체육활동으로 진행됐지만, 아이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를 보이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경주시새마을회 피서지 환경 살리기 캠페인

경주시새마을회는 지난 23일 감포읍 오류해수욕장 일원에서 새마을 환경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피서지 환경 살리기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새마을 환경 캠페인, 재활용품 수집 및 환경살리기 대축제 등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마련됐다.

피서지 환경 살리기 캠페인에는 연일 지속되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수욕장 개장이 끝난 해수욕장에서 각종 쓰레기 수거, 해변가 부유물 제거 등을 진행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민관 협업 황리단길서 홍보
경주페이 추가 캐시백 안내
업소 회원 · 시청 직원 등 참여

경주시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지난 26일 황리단길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물가안정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물가모니터요원, 착한가격업소 회원을 포함한 시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근 상인들과 관광객들에게 물가안정 홍보를 위한 물품과 착한가격업소 유인물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따른 경주페이 추가 캐시백 제공과 카드사 연계 캐시백 혜택 등도 안내했다.

유용숙 경제정책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적극 동참해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사)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 경주, 컵라면 기부

매년 취약계층 물품 지원

(사)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 경주시지회는 추석을 맞아 23일 산내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홀몸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컵라면 80박스를 전달했다.

(사)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 경주시지회는 교통안전 교육 및 바른 운전 홍보사업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한 물품을 지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김현규 총무를 비롯한 회원들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박진우 산내면장은 "매번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주시는 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 경주시지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명절에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구석구석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주 화랑마을 야외 수영장, 45일 동안 1만여명 찾아

수질 관리·안전 조치 큰 호응
모바일 입장대기 시스템 도입

경주 화랑마을은 45일 동안 문무야외수영장을 운영하며 1만명에 육박하는 9691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화랑마을 문무야외수영장은 매년 7~8월 시즌제로 운영되며, 올해는 지난달 9일부터 이번달 25일까지 운영됐다.

입장료는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으로 문무야외수영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소확행'을 선물했다.

매년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문무야외수영장은 올해도 운영 전부터 이용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간 수영장의 동시 수용 인원이 200명을 초과하면서 대기 명단에 이름만 올리고 돌아간 방문객도 많았다.

이에 화랑마을은 올해부터 모바일 입장대기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인원들에게 입장 가능 문자를 발송해 입장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화랑마을은 쾌적하고 깨끗한 수질과 환경 조성을 위해 하루 3회 정기 검사 외에도 수시 검사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화랑마을은 문무야외수영장 이용객 뿐 아니라 근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화랑마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라이프가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문무야외수영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입장료 수입은 3274만 7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시설 보수를 거쳐 내년 7월 재개장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온열질환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던 올여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성공적인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고생한 화랑마을 직원들과 이용객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市 청소년합창단, 양산전국청소년합창대회 대상

본선 오른 총 10개 팀 경연
올해 12월 정기연주회 예정

경주시 청소년합창단이 지난 24일 양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2회 양산전국청소년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1차 영상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경주, 거제, 부산, 사천, 양산, 울산 지역의 총 10개 합창단, 370명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주시 청소년합창단은 'Lux Aeterna(영원한 빛)', 'La Bamba'로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욱 지휘자는 "2022년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경주시 청소년합창단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매주 일요일 꾸준히 연습해 온 열정이 전국대회 대상이라는 결실을 맺어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시에서도 앞으로 이들의 꿈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경주시 청소년합창단은 오는 9월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0월 울산남구구립합창단 창단연주회 특별공연,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주제 공연, 제20회 부산국제합창제 참가, 11월 코리아심포니 브라스 정기연주회 특별 초청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 남산동서 첫 벼베기 현장 방문

조생종 해담벼 첫 벼베기 시작
경주농협 130㏊ 쌀 660톤 출하

주낙영 시장이 27일 남산동 일원에서 올해 첫 벼베기 현장을 방문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이동협 시의회 의장, 최준식 경주농협 조합장, 안영석 경주농협특수미쌀작목회 회장 및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주 시장은 먼저 벼 작황을 점검한 후 직접 콤바인에 시승해 벼베기 작업을 시연하며 농민들이 키운 벼를 수확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 농민들과 오찬을 나누며 벼농사 재배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수확한 쌀은 조생종인 해담벼로 지난 4월 21일 첫 모내기를 했다.

경주농협특수미쌀작목회(34호)는 이번 첫 벼베기를 시작으로 130㏊에서 쌀 660톤을 수확할 계획이다.

이후 수확한 쌀은 경주농협을 통해 이사금 쌀로 출하된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는 폭우와 폭염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큰 피해 없이 벼를 수확할 수 있었다"라며 "수확기가 끝날 때까지 좋은 날씨가 이어져 풍년 농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황성동 새마을협,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지원

경주시 황성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지역 내 노후된 싱크대와 도배장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 대상 가구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복지, 보건, 주거, 일상생활 유지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이다.

안원숙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회원들이 가진 재능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황성동 새마을협의회는 황성동맞춤형복지팀과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적인 재능기부로 지역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승하 황성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보내주신 황성동 새마을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황성동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성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평소 황성동 주민들을 위하여 환경정비활동, 불우이웃돕기, 풀베기 봉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포항 경산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경산 결혼이민자 문화 강연

경산시가족센터는 7월부터 지역 내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과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세계 문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전문 강사들이 기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와 전통 의상, 놀이 체험,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11월까지 총 7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강사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다문화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산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어린이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센터는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영덕서 중등 축구대회 성료

중등 축구 스타들의 열전, 2024 STAY 영덕 추계 전국 중등 축구대회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영덕군 신태용축구공원 등 6개 구장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축구협회와 영덕군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80개 팀(U15 45개 팀, U14 35개 팀)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정정당당한 승부가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예선 조별리그전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팀들의 토너먼트로 이뤄졌으며, 무더위가 이어지는 기후 속에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 경기를 야간에 치르는 한편 얼음을 제공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의료진과 응급 예비 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경기는 24일 열린 U15 그룹 결승전의 경우 충남천안축구센터가 경기수원월드컵FC 를 1-0으로 꺾어 우승했으며, U14 유스컵은 경북경주무산FC가 경기백마중을 2-1로 눌러 정상에 올랐다.

영덕군은 이번 대회 기간 참가 선수단과 가족들이 장기간 영덕군에 체류하며 음식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을 비롯해 각종 관광 콘텐츠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파악한다.

울진 국지도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온정~원남〉

2차로 11㎞ 총사업비 1295억원
2025년부터 편입토지 보상·착공
군수, 정부 찾아 추진 노력 성과

울진군은 지난 22일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 사업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에서 매화면 갈면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으로 2차로 연장 (11.7km)에 총사업비 1,29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터널 3개소가 포함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27% 증액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부산국토관리청과 경상북도는 기존 국도88호선을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1,880억원에서 1,295억원으로 줄이고 정책성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온정~원남간 국지도69호선 건설의 필요성을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형수 국회의원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울진군과 중앙정부, 경북도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모두가 한 뜻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이 사업은 2024년 설계가 마무리된 후, 2025년에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고 2030년에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며, 재난 발생 시 국도 7호선의 대안 경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통의 오지인 백암온천과 온정면, 매화면 일원의 응급 의료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향상되고, 공사로 인해 약 1,7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울진군 온정면~매화면 구간을 시설 개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수도권 소비자 만난다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올해 16회째 행사 진행

영양군은 오는 29~31일까지 '2024년 영양고추 HOT페스티벌'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정지역 영양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의 직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도농상생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게 된 이번 '영양고추 HOT페스티벌'은 "K-매운맛! 영양고추! 맛보러 오이소~"라는 주제로 막을 연다.

올해 16회째 실시되는 이번 '영양고추 HOT페스티벌'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군 홍보전시관, 시민참여 체험행사, 영양고추 테마동산, 개회행사, 생방송 프로그램, 원놀음 공연 등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청 광장을 빨갛게 물들일 페스티벌은 영양고추 테마동산과 영양고추 퀴즈쇼, 매운 음식 먹기 챌린지, 고추 채썰기 등 도시민들의 참여 욕구를 자극할 만한 구성들로 기대를 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 3일간 진행되는 '영양고추 HOT페스티벌'은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농가와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등 우수 고춧가루 가공 업체로 구성했고, 영양군에서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최고 품질의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다양한 농특산물을 통해 '상생고리형성'의 준비를 마쳤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제 곧 서울의 중심 시청광장에 붉은 고춧가루 물결이 넘칠 것이다."라고 말하며, "영양군이 언제나 옳고 정직한 마음으로 준비한 질 좋은 농특산물이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길 바라며, 추석 선물로도 좋고 김장에 필요한 고춧가루 그 품질 좋은 고추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포항시, LH 사회공헌사업 공모 최종 선정

눌태리 일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내년 상반기까지 리모델링 완료

포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세대공감 나눔+ 사회공헌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업사이클링해 인구 및 지역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포항시는 구룡포읍 여성회관 리모델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LH로부터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구룡포읍 눌태리 일원에 소재한 구룡포읍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 아동부터 고령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과 구룡포읍의 육아지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사업협력주체인 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공사업체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구룡포읍은 지난 6월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모공원 설립부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포항시는 이 지역을 필수시설 추진의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기존 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폭적 지원을 통한 지역 종합발전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추모공원 선정에 따른 구룡포읍 지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룡포읍에 전 세대를 위한 문화 활동 및 육아 지원 거점을 마련해 읍민들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군공립형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위문

겨울·여름방학 총 5회 진행

영양군공립형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32명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정서 발달 및 효(孝)를 몸소 실천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나눔과 함께한 즐거운 방학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겨울 및 여름 방학 동안 총 5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직접 만든 간식을 준비한 후 바들양지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간식을 먹고 안마도 해드리고 장기 자랑도 선보이는 등 아동들과 어르신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경로당에서는 아동들이 오는 날에 맞추어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미리 준비해 두는 등 아동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예쁜 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직접 만든 간식을 보니 너무 고맙고 요즘 아이들이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자주 와줘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영양군공립형지역아동센터 김경미 센터장은 "이번 활동으로 아동들이 경로사상과 공동체 의식을 몸소 체험하는 계기로 삼아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 행사로 이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어르신들께서 아동들의 작은 나눔에도 기쁘게 화답해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을 돌아보며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올바른 사회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영양군 아동들의 정서 안정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청송소방서 벌 쏘임 주의 당부

청송소방서는 최근 이상 고온 및 지속적인 열대야 현상으로 인한 벌 개체수 증가 및 활동으로 급증하고 있는 벌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3년 경북 벌 쏘임 사고 1,109건 중 654건이 8, 9월에 발생했고 특히 "벌초와 성묘 기간은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라며 벌 쏘임 사고 주의를 강조했다.

벌 쏘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말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119 신고 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으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등의 사용 자제 △벌은 어두운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여 밝은 계열의 옷을 착용 △벌집 발견 시 절대 건드리지 말고 자세를 낮추어 천천히 멀리 이동 △벌집 접촉 시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이 있다.

청송소방서 관계자는 올바른 대처로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벌 쏘임 사고 발생 시 속 메스꺼움, 구토, 설사,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윤병문 기자

영덕, 불법소각 지도·단속

영덕군은 생활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집중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에 대한 소각 행위로, 영덕군은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불법소각으로 적발이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의성,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되도록 소통 최선

의성군, 민-민 상시돌봄 발대식
주민 600여명 참석 포럼 병행
의성군, 시범사업 2년차 맞아

의성군은 26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의성군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포럼 및 민-민 상시돌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돌봄을 위해 뜻을 함께한 주민 6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1부 민-민 상시돌봄 발대식과 2부 의성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포럼으로 나눠 진행하였다.

1부 민-민 상시돌봄 발대식에는 민-민 상시돌봄의 구성원인 행복기동대와 마을돌보미들이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성군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특화사업인 '민-민 상시돌봄체계'는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의성군 자체적으로 구축한 주민 주도형 돌봄체계로, '읍면-마을-이웃' 단위의 인적 안전망인 행복기동대 183명, 마을돌보미 400명, 이웃돌보미 283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포럼은 "의성군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행 1년, 경과와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의성군의 그간 추진 경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최기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팀장님의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방향" 설명과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님의 "의성군 밖에서 바라본 의성군 통합지원 추진 1년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토론에서는 김건엽 교수(경북대학교 의학과), 김유진 교수(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군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지자체 중 대구경북 유일하게 선정돼 지난해 7월 첫발을 떼고 지금까지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번 발대식과 포럼을 바탕으로 의성군 시범사업 2년차에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이 되도록 민관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공공중심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민-민 상시돌봄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되는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의성군은 지난 1년간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형 돌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시범사업 내실화와 고도화를 향해 전진해 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구미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의성

대만룽화초교 축구팀 고령 방문

고령군은 26일 대만 가오슝의 룽화초등학교(龍華國小) 유소년 축구팀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고령군 쌍림면 개실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룽화초등학교 축구팀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경북지역의 유소년 축구팀과 교류전을 가지기 위해 방문하였고, 방문지역의 대표 관광지와 문화 체험도 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방문 4일 차에 경북 고령을 방문해 개실마을에서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마을투어를 마치고 합천으로 이동했다.

이들 유소년 축구팀은 합천군과 거창군에서도 축구 교류전을 가질 계획이며, 고령군은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사업으로 국제 스포츠 교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배영백 기자

성주군 문화가 있는 날 행사

2024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성주군에서는 역사테마공원분수광장, 아트리움 모리, 창의문화센터에서 '구석구석 문화배달'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여러 기획사업 중 하나가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이다.

이 공연은 6월 2일을 시작으로 구석구석 공연배달극장 "소풍"이라는 명칭답게 성주군의 랜드마크인 여러 장소를 직접 찾아가는 공연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가 진행하고 있다.

내달 1일 16시에 진행될 4회차 프로그램은 월항면 아트리움 모리에서 아주작은 극장 4작품에 이어 마임공연, 마리오네트 인형극, 1인 광대극의 본 공연까지 3시간동안 다채롭게 펼쳐진다.

모든 공연은 전 연령이 관람가능하며 무료이다. 또한 먹거리부스에서는 음료도 제공될 예정이다. 공연에 대한 문의는 054-444-0604 "(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로 하면 된다. 도재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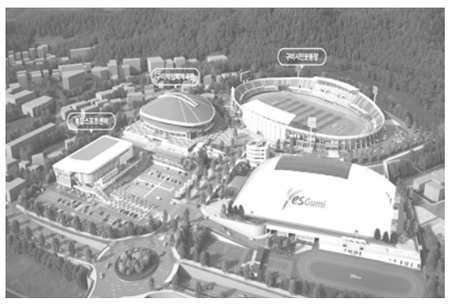
구미시, 20억원 국비확보… 에어돔 조성 본격화

국내 최대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2026년 상반기 완공 목표 추진

구미시가 2024년 1차 국비 교부액 12억원을 편성하며 구미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지훈련특화시설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과로, 12개 지자체 중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육상전지훈련장인 에어돔은 국내 최대규모로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총 150억 원(국비 50억, 지방비 100억)을 투입해, 총 연면적 13,994㎡(4,240평)로 설치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지역 체육인들로부터의 설문 응답 등을 통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현재 설계공모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4년 1회 추경예산으로 국비 12억원을 편성해 올해까지 총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2025년에는 추가로 30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2026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시설이 준공되면 사계절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육상전지훈련 특화시설로 활용되며, 비시즌에는 스포츠 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의 다양한 문화 축제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권순모 체육진흥과장은 "제62회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등 대형 스포츠 행사와 함께 육상전지훈련장 에어돔 조성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송명주 기자

고령군, 로컬마켓 MOU 체결

고령군은 26일 롯데마트, 경상북도소상공인협동조합과 고령군청에서 대도시 대형마트 로컬마켓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남철 고령군수와 롯데마트 배장호 영남서부지역장, 경상북도소상공인협동조합(이하 경소협) 권기상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상호 신뢰와 지원을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에는 고령군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등의 홍보·판매 강화를 위한 판로 지원 및 자문, 마케팅 지원, 우수제품 판매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마트의 넓은 유통망과 대규모 고객층을 통해 유통 범위와 매출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기대된다. 배영백 기자

성밖숲 퍼플피플 음악회 성료

2백여명 가족 관객들 찾아
지역예술단체 공연 의미 더해

지난 23일~24일 양일간 개최된 성밖숲 퍼플피플 음악회가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 속에 성료했다.

이번 음악회는 전국 유일의 왕버들나무 군락지인 성밖숲 맥문동 개화 시기에 맞춰 개최돼,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실경 음악회로 문화예술 향연을 장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경쟁력을 확보코자 개최되었으며, 이틀간 약 2백여명의 가족단위 관객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23일 오후 7시에는 재즈밴드, 뮤지컬 갈라 공연, 24일 토요일 오후3시에는 별고을 오케스트라, 행복아코디언 색소폰 봉사단, 같은 날 오후7시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과 성악 4중창 수성솔로이스츠의 다채로운 공연으로많은 관객들의 호응 속에 음악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발굴된 지역예술단체의 공연으로 음악회의 의미가 더해졌으며, 이

번 공연을 통해 성밖숲이 문화관광이 공유하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길 기대해본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보랏빛 맥문동이 만개한 성주의 대표 국가유산인 성밖숲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성주군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콘텐츠들이 창조되고 군민들이 문화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 더 많은 군민들이 다채로운 예술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청도군, 추석 앞두고 중기 운전자금 지원

1년간 대출이자 3% 지원
일반기업 최대 3억원 규모

청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45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33개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85억 원을 추천했으며, 추석을 맞아 18억 원을 추가 증액한 45억 원을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최대 3억 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업체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취급 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시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4개 사를 방문해 융자가능 여부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협의 후 온라인신청(https://www.gfund.kr) 또는 방문 신청(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이 가능하며, 추석자금 접수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추석자금 지원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칠곡경찰서, 어르신 범죄예방 교육

칠곡경찰서는 지난 23일 왜관읍 칠곡문화원에서 선비교육 아카데미 수강생 25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에서는 경북청 보행자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이 64.7%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 유형별 영상시청을 통해 보행자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서다', '보다', '걷다'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점점 더 교묘해져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최근 수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코난' 어플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설치해드리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영천시립도서관, '독서의 달' 문화행사

영천시평생학습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5g, 가볍지만 위대한 세상을 펼쳐보세요'라는 주제로 영천시립도서관 곳곳에서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 축제를 진행한다. 4일부터 그림책 원화 전시, 디지털 잠시 멈춤 행사를 시작으로, 대출정지 면제 이벤트, 도서관 극장 '반짝 영화 상영'을 진행하고, 책 놀이 체험, 김지영 작가와의 만남을 추진해 9월 한 달 동안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yclib.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54-339-777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은하 기자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봉화
예천

김천시립국악단 음악회 성료

김천시가 주최하고 지례면 행정복지센터가 주관한 '김천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가 지난 23일 산내들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행사는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버리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음악회를 마련하였으며 김충섭 김천시장, 나영민 김천시의회의장, 경북도의원, K-water 김천부항댐 지사장, 김천시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음악회를 즐겼다.

음악회는 트로트와 국악의 흥을 접목해서 대중적이고 신나는 무대들로 국악관현악에 맞추어 가수들의 기존노래와 다른 새로운 느낌을 선사 했다. 이경호 기자

문경, 캠핑대전 박람회 참가

문경시는 지난 23~2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캠핑대전"박람회에 참가해 캠핑하고 싶은 문경, 놀러오고 싶은 문경을 적극 홍보했다.

시 홍보관에서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아 캠핑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문경시의 다채로운 캠핑 장소들과 함께 가을철에 이어질 3개 특산품 축제(오미자, 한우, 사과)를 홍보하며 캠핑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경의 매력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청년 기능인력 장려금 지원…안정적 정착 유도

문경, 월 50만원 최대 12개월
중기 생산직 3개월 이상 재직
올해 11명 기능인력 혜택 받아

문경시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4년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대학(교)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45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재직 또는 실습 중인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문경시는 지난 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청년 인구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인구 소멸 대응의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하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의 나이·지원금액·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2022년 1명에 불과하던 지원인원이 2023년 10명에 이어 올해는 11명의 기능인력 청년인턴들에게 총 6천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은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인구 소멸을 극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봉화 맞춤형 돌봄전문가 수료식

봉화군은 지난 23일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 수료생 1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맞춤형 돌봄전문가 양성과정은 경북도의 시군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의 특성상 돌봄이 필요하지만 활동사의 부족으로 정기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취업자에게는 전문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됐다.

이번 과정은 경북도 지원사업으로 영주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에 선정돼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장애인활동지원사, 미술심리상담사, 마을복지계획전문가, 병원코디네이터 4개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참가 교육생 17명이 전원 수료 및 4개의 자격증 취득을 했고 취업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신현길 인구전략과장은"교육생 전원이 수료했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했고 취업과 바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 지원을 확대해가겠다."라고 전했다.

교육생 대표 윤정숙 씨는 "이번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은 매우 값진 시간이었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안동소방서, 명절기간 화재예방대책

안동소방서는 2024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화재예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4년 추석은 긴 연휴기간으로 많은 귀성객이 안동시와 영양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안동소방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와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대상물의 안전 미비사항은 추석 전까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추석 명절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시기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방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모두가 안전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명주 기자

영주시 특별교부세 확보… 행안부 방문 면담

영주댐 일주 야간경관 등 전달

영주시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영주댐 일주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산면 석포리~지동리(군도10호) 도로확포장공사', '단산면 병산리(면도102호) 도로확포장공사'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지방 재정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원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심사 후 교부한다.

시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영주댐 일주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야관경관 명소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당초 도로폭이 협소해 차량 통행이 어렵고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지속 건의됐던 도로확포장공사를 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는 사업이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효율적인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 건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경북호국보훈재단, ESG경영 위원회 회의 개최

내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은 8월 26일 ESG경영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재단은 2024년을 ESG경영 성장의 해로 삼고,'기억하고 계승하는 나라사랑 정신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이라는 ESG경영 비전 달성 및 전략적 추진을 위해 ESG경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재단 ESG경영 위원회는 재단 임직원 3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촉된 위원은 재단의 지속가능한 경영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교육, 학술, 연구, 전시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ESG경영 추진 계획 의결 △2025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결과보고가 이뤄졌으며, ESG위원들의 제언을 통해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위원들의 고견청취와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한희원 대표이사는"ESG경영 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우리 재단에 특화된 ESG경영을 실천해 호국보훈 가치를 도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Opinion

신문 맛이 달라지면
신문 내용도 달라져야합니다
대구광역일보는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영숙
편집인 김성용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지역번호 053
대 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국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칼럼

자식농사(子息農事)

김 병 연
시인·수필가

농부는 작물을 가꾸는데 온갖 정성을 다한다.

싹이 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십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부는 매일매일 정성을 다할 뿐 조금도 조급해 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물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이런 원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농부는 1년을 기다리지만 교육은 최소한 1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아이가 언젠가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생활이 교육이고 교육이 생활이라는 말과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관자는 1년을 생각하면 벼를 심고,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어야 한다고 하였고,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얻는 것이 벼이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얻는 것이 나무이고, 하나를 심어서 백을 얻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을에 거두어들일 것이 많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쉼 없이 일하며 곡식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는지 늘 정성으로 보살펴야 하듯이 자식농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자식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선 안 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된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농사는 금년에 잘못 지었으면 내년에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지만, 자식농사(子息農事)는 한 번 잘못 지으면 영원히 복구가 어렵다.

자식의 잘못됨은 부모의 몫으로 남게 되고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풍년 든 자식농사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자식농사는 농사 중의 농사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청년들의 경우 서울대 학사과정을 나와도 대학원 진학자를 뺀 순수 취업률이 50%도 되지 않는다. 참담한 현실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수많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공무원의 주가를 상종가로 끌어올렸고 전국의 교대를 연고대 수준으로, 한국교원대를 서울대와 연고대의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970년대에는 순경 시험은 미달이었고 일반직 공무원 시험도 별로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순경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되기도 매우 힘들다.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5급 공무원)의 보수가 중견기업 수준이다. 5급 공무원의 보수가 대기업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H자동차 공장의 자동차 조립공의 보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45세 정년이라던 대기업의 정년도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고 무노조(無勞組) 경영을 하던 삼성그룹마저도 문재인(文在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무직까지 노조가 생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8년부터 최고의 인재들이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자식 대학 졸업시켜 의사나 판검사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기업에 취업하면 최선이고,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차선이며, 9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순경으로 취업해도 선망의 대상이다.

□ 참고 사항

1. 대통령 연봉(2024년) : 2억5천493만3천원
2. 의사 연봉(2022년, 전공의 제외) : 3억100만원
3. 의사 연봉(2024년 전문의) : 3억8000만원 이상(추정액)
4. 판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5. 검사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3,433,500원
6. 사무관(5급 공무원) 월급(기본급, 1호봉, 2024년) : 2,717천원

■ 논평

대구시와 기초지자체는 방치된 빈집 해법을 찾아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등 자치단체에 빈집 현황을 행정정보청구하니 '소규모&빈집정보알림e'를 안내했다. 그래서 직접 확인했다.

대구의 전체 빈집 수(2021년 기준)는 대구 총 주택수의 0.5%에 해당하는 4,137호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전체 빈집 중 중구는 184호, 동구 698호, 서구 444호, 남구 384호, 북구 505호, 수성구 554호, 달서구 243호, 달성군 534호이며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이 591호다.

조사 당시 군위군 편입이 안 된 상황을 고려해도 대구의 빈집은 3,536호다.

빈집 비율이 대구 평균보다 높은 기초단체는 군위군이 5.3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남구 0.89, 서구 0.86, 중구 0.63, 동구 0.54, 달성군 0.52 순이었다.

이중 단독(다가구 포함)이 3,350호로 81.0%이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361호로 8.7%이며, 그 외 주택(무허가)은 426호로 10.3%를 차지해 아파트 선호로 인해 공동주택의 빈집 비율이 다른 주택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40년 이상 된 빈집은 전체 빈집의 78%인 3,240호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양호) 748호(18.1%), 2등급(일반) 1,686호(40.8%), 3등급(불량) 1,030호(24.9), 4등급(철거대상) 673호(16.3%)였으며, 기초단체별로 4등급 철거대상 비율은 중구 37호(20.1%), 동구 137호(19.6%), 서구 112호(25.2%), 남구 63호(16.4%), 북구 74호(14.7%), 수성구 86호(15.5%), 달서구 44호(18.1), 달성군 120호(22.5%)다. 군위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 빈집의 건축면적은 23,754,685㎡, 대지면적은 3,153,382㎡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빈집은 증가추세이고 도시 지역인 대구 또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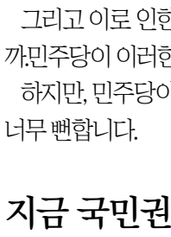
빈집은 붕괴위험, 안전, 보건위생, 쓰레기 악취문제 등의 문제로 주거불안이 삶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빈집들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있으나 마나 한 빈집정비사업의 한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흉물이 되기 전에 방치된 빈집의 해법을 찾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

빈집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 임대받아 쉼터, 주차장, 텃밭, 공원 등으로 만들거나 공유재산화하여 복지문화공간으로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때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정치

민주당은 '괴담 정치' 말고는 전략이 없습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김 준 호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가동되자마자 민주당은 '괴담 정치'로 나라를 흔들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란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망상 수준의 괴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의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을 두고도 연일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라며 열을 올립니다.

독도의날에 맞춰 전면 리모델링한 조형물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설명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런 조사단을 만든 것 자체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지만, 코로나로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긴급 사안인 것 마냥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더욱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펼치면서 그에 대한 근거는 한 마디도 내놓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광우병 선동, 천안함과 세월호,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각종 괴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 또한 얼마나 막대했습니까.민주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입만 열면 괴담으로 선동하는 이유는 너무 뻔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의 권익을 위한 위원회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 민 수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이제야 명백해졌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부패방지국장이 사망하기 전날 좌천성 인사가 예고되었고, 강한 항의와 고성도 오갔다는 제보가 폭로되었습니다.

수사외압에 대한 증언과 의혹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권익위는 계속 부정할 셈입니까?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본인의 직무에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고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인을 보복성 인사로 막다른 선택으로 내몰고 뻔뻔하게 이를 숨기려 했습니까?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승윤 부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 부위원장은 끝끝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떳떳하다면 숨어있지 말고 나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평생을 부패 방지에 헌신했던 한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죽음 뒤에 숨겨진 실체와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캄캄한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독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신문이 바로
'대구광역일보' 입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